



아틀리에 STORY 시즌 2 [4 회: 이광호 작가]

등록 2015.05.14.



이광호 작가가 마음껏 촉각을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터뷰 시리즈 덕분이었다. 프로젝트가 해를 넘겨가며 진행되는 동안 작가의 캔버스에 소환된 인물들은 직업모델이 아닌 평범한 이웃들이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모델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화가는 하루 종일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만 한다. 어쩐지 한겨울 빛 한줄이라도 받기 위해 이리저리 잔가지를 뺏어야 하는 덩불의 숙명과도 닮아 보인다. 하루하루 작업량을 정해놓고 이광호 작가는 무엇을 그리느냐 보다 어떻게 그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에 덩불 숲이 작품과의 거리에 따라 구상과 추상을 넘나드는 이유 역시 작가 특유의 화법 때문인데 그 예로 장르를 넘나 드는 도구의 등장과 붓질이 끝난 캔버스를 유화가 굳기 전에 판화용 송곳으로 해체하는 기법을 들 수 있다.

[아틀리에 STORY 시즌 2] 4 회, 2015.05.13

[skyA&C(www.sky-anc.co.kr)]

[아틀리에 STORY 시즌 2 다시보기 링크 : bit.ly/1Q0Y57p]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프로그램 아틀리에 STORY 시즌 2

방영일 2015.05.13.

회차 4

카테고리 라이프

URL: <http://tvcast.naver.com/v/391105>